

成長下에서의 所得分布 不均等 趨移

尹 起 重*

1. 序 論

個人所得의 크기는 所得獲得活動에 대한 資質과 能力, 所得에 대한 必要性, 그 個人的 趣味와 選好, 年令 그리고 所得機會등의 要素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社會正義實現이라는 初步의 理由와 그리고 經濟現象에 대한 因果的 說明을 위해서 個人所得이나 富의 分布狀態를 파악하고 그 原因의 究明과 性質에 대한 分析이 옛부터 試圖되어 왔다. 첫 理由로서 社會正義實現이란 바로 國民의 經濟的 厚生의 最大化 問題라 할 수 있다. 個人所得의 分布와 經濟的 厚生과의 關係를 「달톤」은 降雨量分布와 收穫量과의 關係로 비유 설명하고 있다. 즉 農業에 있어 降雨量의 不平均性은 收穫總量에 惡影響을 미치는 것과 같이 個人所得分布의 不均等性은 國民의 經濟的 厚生總量을 감퇴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8] 이러한 自然法則의 理由로 그의 不均等度 深化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降雨量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農業生産高에 미치는 效果를 중시하는 것과 같이 所得에 있어서도 그의 平均的 水準이나 總量보다는 그의 分布狀態가 더욱 重要視되어야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所得分布狀態 分析의 첫째 意義라 하겠다.

個人간의 所得이나 富의 分布狀態에 대한 分析意義는 經濟的 厚生問題이외에 다른 한 側面에서도 요구되고 있다. 즉 經濟現實에 대한 因果的 說明을 위해서다. 經濟現象설명을 위한 基本法則으로서 市場의 需要函數나 消費函數등을 論議함에 있어 당연히 個人所得이나 富의 分布狀態를 意識하게 되고 또 이를 前提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는 우선 「마샬」의 需要法則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個人的 需要函數로부터 市場需要函數를 導出하고 이로부터 需要法則을 誘導함에 있어 個人行爲의 總合이라는 手段을 적용하고 있다. 相互獨立的인 個人行爲는 多樣하고 不安定的인 지만 全體로는 個人的 不安定性이 中和相殺되어 비교적 規則的인 總合特性이 나타나

게 된다. 이때 總合은 個體經濟量의 加重平均 또는 加重總和를 뜻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個人간의 所得分布가 前提된다. 또 이와같이 總合된 需要函數의 파라메타인 需要彈力度의 크기는 所得이나 富의 分布狀態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見解는 19世紀末 「쿠루노」와 「파레토」에 의해서도 제시되었다. 즉 需要函數는 富의 分布狀態에 의존한다는 것, 그리고 需要와 供給의 支配法則을 理解하기 위해서 考慮되어야 할 가장 重要한 對象이 바로 所得分布라는 점등을 지적하고 있다. [21]

所得分布狀態가 消費函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듀젠베리」의 消費函數理論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그에 의하면 總體로서의 消費函數는 단순히 平均의인 所得水準뿐만이 아니라 所得의 個人間分布狀態에 의존하고 그리고 個人的 消費行爲도 그의 絶對的 所得水準보다는 社會的 相對所得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理論의 骨子는 國民所得決定機構에서의 主要파라메타인 消費性向의 크기도 餘他條件이 一定하다 할때 所得分布의 不均等度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괴구」가 지적하듯 所得分布나 富의 分布狀態는 바로 國民의 經濟的 厚生의 한指標가 된다는 점 [20] 그리고 그것은 需要函數나 消費函數의 決定的 要因인것과 같이 모든 經濟現象의 原因이나 性質究明의 對象이 된다는 점에서 그의 分布狀態分析의 意義를 찾아 볼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本稿는 所得이나 富의 分布狀態로서 그의 不均等度에 관해서 論議하되 먼저 理論적으로 그의 不均等度 原因을 究明하고자 한다. 물론 그의 不均等度는 政治的 및 社會的 그리고 經濟的 制度에 의해서 決定된다 하겠지만 本稿에서는 순수 經濟的 側面에서만 考察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理論的 分析結果에 따라 韓國의 所得分布 不均等度를 年度別로 測定하고 이 時系列의 變動特徵을 파악하는 동시에 그러한 變動特徵의 要因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分析結果는 그 동안의 政策效果를 評價하는데도 寄與하게 될 것이다.

위와같은 目的을 위해서 먼저 所得分布의 不均等度變動樣相을 理論적으로 檢討分析한다. 이것은 餘他條件이 一定하다 할때 그不均等度 變動의 要因究明問題로 歸着된다. 이러한 理論模型과 韓國의 所得分布 不均等度 變動樣相과를 대응시키기 위해서 韓國의 所得分布 不均等度를 年度別로 測定하되 먼저 적절한 資料를 選擇 檢討하게 될것이다. 이와같이 얻어진 그의 變動樣相이 理論模型과 부합되는가를 吟味 分析하기 위해서 그의 變動樣相의 特徵을 탐색하고 그 結果를 理論模型과 대응시켜 韓國에서의 所得分布狀態를 評價하게 된다.

2. 成長과 不均等度

所得分布의 不均等度を變動시키는 要因은 景氣의 變動이나 物價의 變動으로 생각해 왔고 또 實證의으로 分析 檢定된 事例도 없지 않다. 한 實證分析에 의하면 不況期에 高所得層에서의 不均等度は 安定 내지는 均等化되어가는 傾向을 보이는 데 대해서 低所得層에서의 그것은 반대로 深化되는 現象을 보이고 있다 한다. [15] 이 分析은 1929年에서 1933年까지 美國 都市의 個人所得資料에 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勤勞者가 集中되어 있는 都市의 경우 敎師 法官 등의 定額所得者는 不況期에 物價下落으로 實質所得이 上昇하는 반면 日給의 肉體勤勞者의 所得은 失業에 의해서 總體로서의 配分率만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實質所得도 현저하게 감소하게 된다 이때 定額所得者는 高所得群에 屬하게 될 것이고 日給의 賃金所得者는 低所得群에 屬하게 될것이다. 이때 高所得群의 階層內部에서는 비교적 安定되어 있지만 低所得群의 경우는 所得配分率의 低下와 더불어 實質所得이 減少하면서 階層內部에서 所得攪亂이 생겨 所得分布 不均等도가 深化될 것이 分明하다.

景氣의 變動은 所得總量を變動시키며 나가서 所得의 分布狀態에 衝擊을 加하여 드디어 그의 不均等度を 변화시킨다. 戰後 開發途上國 여러나라들은 意圖의으로 經濟開發내지는 發展計劃을 수립하고 推進하고 있다. 이것은 平均的인 個人所得 또는 1人當國民所得의 増大를 期하는데 基本目的이 있다. 즉 成長을 통한 國民의 經濟的 厚生 増大를 위한 것이라 하겠다. 물론 平均所得의 増大도 經濟的 厚生을 增大시키지만 그의 不均等도가 深化된다면 經濟的 厚生은 逆의 效果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理由로 意圖의으로 經濟를 發展시키되 그의 分布狀態를 적절히 改善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政策目標라 하겠다.

現實은 國民所得의 増大와 그의 均等化와는 兩立할 수 없다고 한다. 이두가지 目標을 同時的으로 達成하려는 意圖는 마치 한 騎手가 두말을 同時에 타려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러한 問題는 특히 戰後의 開發途上國에서 當面한 한 課題이기도 하다. 그러나 「쿠즈넬」에 의하면 經濟發展過程에서 所得分布의 不均等도와 經濟成長간의 關係는 逆U字型的 變化曲線을 갈게 된다는 것을 提示하고 있다. [14] 「루이스」는 發展過程에서 成長과 不均等가운데 二中擇一해야 한다는데 반해 「쿠즈넬」은 반드시 그 중 하나를 犧牲시킬 필요는 없고 經濟成長에 따라 그의 不均等도는 自然法則의으로 變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經濟發展의 初期段階에서는 일반적으로

不均等도는 다시 減少 改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工業化過程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實證分析結果에서 얻었다 한다 즉 1人當國民所得을 橫軸에 그리고 그의 不均等도를 縱軸에 취하고 각國의 1人當所得과 不均等도를 대응시켜 본 결과 所得增加에 따라 不均等도는 逆U型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後日「쿠즈넬」假說 또 逆U型假說이라 부른다.

위 假說이 眞이라 할때 經濟發展에 따라 低所得層의 貧困化는 必然的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바로 低所得層에 대한 貧困化假說로 通用될 수 있다. 經濟發展의 進行이 급속히 이루어질 때 低所得層의 配分이 相對的으로 그리고 絶對的으로 減少될 때 비록 初期의 現象이라고는 하나 所得分布狀態는 惡化되어 經濟厚生을 감소시키게 된다. 비록 이러한 理由만으로는 아니나 1960年代와 70年代 開發途上國에서 經濟發展을 推進하고 있는 時代의 背景을 土台로 逆U型假說에 대하여 많은 論議가 있었다. 이 假說에 대해서 肯定的 結論을 얻은 경우는 「크레비츠」 「오시마」등의 研究이며 [13], [17] 또 部分的으로 認定하고 있는 경우는 「아루와리아」의 分析結果다. [1], [2] 이는 두번에 걸친 分析에서 逆U型假說을 全面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도 그의 分析結果는 部分的으로 그 假說과 일치된다. 즉 첫研究에서는 13個國의 開發途上國을 대상으로 時系列資料에 의해서 分析한 결과 6個國은 所得增加에 따라 不均等도도 增加하고 있는데 반해 다른 6個國은 前者와 反對現象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1個國은 所得增加에 따라 그것이 安定的이었다. 두번째 分析에서는 40個國의 開發途上國 14個國의 先進國 그리고 6個國의 社會主義國家를 대상으로 分析한 결과 대체로 逆U型假說에 부합되는 結論을 얻었다. 즉 所得階層을 5個로 區分하고 1人當 GNP와 각 階層의 所得配分率과를 二次型模型에 符合시켜 본 결과 上位 20%階層을 제외한 나머지 下位 4個階層의 所得配分率は 1人當 GNP 增加에 따라 U型의 變動曲線을 나타낸다. 下位階層에서의 그것이 U型이기 때문에 分布狀態의 不均等도는 逆U型으로 해석된다. 또 각 階層所得配分率이 1人當 GNP 增加에 따라 逆轉하는 轉換點은 각 階層別로 같지 않았다. 이상으로 보아 이 分析結果는 劃一的이라 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쿠즈넬」의 逆U型假說과 부합되는 듯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經濟發展과 不均等도간의 關係를 法則的으로 해석하려하지는 않는다.

위와는 달리 逆U型假說에 대하여 否定的 結論을 얻은 경우는 「애들만」과 「모리스」의 分析結果에서도 볼 수 있다. 이들은 44個國의 開發途上國을 對象으로 分析한 결과 그 假說과는 否定的 結論을 얻고 있다. [16] 즉 1人當 GNP가 增加함에 따라 所得層의 不均等도는 相對的인 絶對的으로 低下되고 있음은 사실과

있다. 이외에 「취일즈」는 所得分布狀態와 所得增大와는 無關하다는 것이며 [10] 「크라인」은 씨류레이손技法에 의해서 所得再分配가 經濟發展에 대해서 中立의效果라는 점을 誇示하고 있다. [7] 그리고 「친」은 所得의 不均等度深化現象이 經濟發展의 必要條件은 아니라는 점을 強調하면서 稅制를 통한 再分配政策으로서 不均等度의 解消效果를 期하게 한다는 것이다. [6]

이상의 여러 分析結果에 따른 論議에서 逆U型假說檢定이 共通의 結果는 얻지 못했다. 그것은 制度, 歷史의 背景 그리고 人口學的特徵 등의 差에 의해서 經濟發展이 劃一的으로 그의 不均等度を 변화시키지 못한데 起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主要分析結果는 대체로 그 假說이 肯定的이라는 점도 없지 않다. 특히 「아루와리아」의 分析結果에서 40個國의 開發途上國을 對象으로 했을때 逆U型과는 달리 U型現象이 명확히 讓別케 한 점 看過할 수 없다. 經濟發展의 進行이 劃一的으로 逆U型의 不均等度推移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形態이건 變하는 것은 分明하다. 그러므로 不均等度의 變化本質을 經濟의 構造的 側面에서 分析하여야 함이 要求된다

經濟發展의 進行過程에서 몇가지 共通의 特徵을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그 過程에서 農業의 相對的衰退와 都市人口의 集中化 現象을 엿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發展의 初期段階에서 發展의 主導産業은 흔히 工業部門이므로 이 部門의 勞動賃金은 農業部門의 그것에 비해서 높게 되어 勞動人口가 都市로 移動하게 된다. 이때 都市와 農村간의 賃金隔差 深化現象과 그리고 農業部門에서 勞動의 限界生産力이 零이라는 점을 생각할때 都市에서 要素간의 配分率隔差深化現象이 예상된다. 즉 主導産業에서 利潤의 配分率이 보다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經濟發展의 速度보다 더 빠른 速度로 그리고 低所得群보다 더 높은 高率로 高所得群의 富나 資産이 蓄積될 때 所得分布의 不均等度는 深化될 것이다.

다음 段階로 都市의 人口集中化現象이 있다 하더라도 人口增加率의 減退, 敎育水準의 向上 그리고 勞動의 熟練度와 質의 向上을 통해서 肉體勞動者의 平均所得이 上昇되어 그의 分布狀態는 改善될 것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이 段階에서도 低所得群이 政治의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는 段階에 도달되기 전까지는 의연 高所得群의 配分이 相對的으로 높고 또 女性勤勞者와 같이 勞動의 限界生産力이 零 또는 그 근방에 있는 새로운 低所得層이 形成되어 그의 不均等도가 용이하게 改善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要素市場 특히 勞動市場이 完全競爭狀態에 있고 産業化過程이 相當히 進行되어 成熟段階에 도달하면 그의 不均等度는 改善되어 갈 것으로 짐작된다.

통해서 유도되었다. 그러므로 여러分析結果에서나 또 經濟發展의 本質에 비추어 그의 理論은 肯定的인 것으로 結論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問題는 逆U型이나 U型運動過程에서 轉換點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理論이 있을 수 있으나 集約하고보면 두가지 說이 있다. 그 하나는 「코린 크라크」에 의해서 提示된 것으로서 轉換點을 國別로 年度에 의해서 표시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루와리아」에 의한 것으로서 轉換點을 所得階層別로 1人當 GNP에 의해서 표시하고 있다. 즉 「코린 크라크」는 그 轉換點이 英國과 獨逸의 경우는 1919年이며 美國은 10年뒤인 1929年이라 한다. [5] 그리고 「아루와리아」에 의하면 각 階層別 轉換點은 上位 20% 所得層은 364弗, 中間 40% 所得層은 291弗, 그리고 下位 20% 層은 600弗이라 한다.

이상의 分析을 土台로 韓國의 그것이 成長過程에서 어떻게 變動하고 있는가의 特徵을 밝혀본다.

3. 資料의 檢討와 不均等度指標

韓國의 所得分布 不均等度測定을 위한 適用資料는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에서 調査한 都市家計調査資料 가운데 「全都市勤勞者家計의 現金所得階層別月平均所得」으로한다. [22] 본래 都市家計調査의 對象은 全都市(市)의 모든 家計이다. 그러나 勤勞家計이외의 家計는 所得을 調査하지 않기때문에 本稿에 利用되는 資料는 全都市勤勞者家計만을 對象으로 한 것이다. 이들 勤勞者家計가운데 1963년부터 1976년까지는 900 그리고 1977年이후는 2000정도의 標本家計에 의해서 얻어진 資料이다. 이러한 資料에 의해서 韓國의 所得分布 不均等度を 測定하는데는 몇가지 問題點이 없지 않다. 즉 첫째는 韓國所得分布의 代表性, 둘째는 所得의 概念問題이다. 앞에서 論議한 바와 같이 이 資料는 農村및 漁村을 제외한 都市가운데 勤勞者家計만을 대상으로 調査한 資料라는 점에서 代表性問題가 提起된다. 그러나 現實의으로 全家計에 대하여 所得階層別所得人員의 分布를 표시한 資料는 없을 뿐 아니라 分布狀態를 年度別로 비교할 수 있도록 一致性을 유지한 資料 또한 없다. 다만 都市에서 勤勞家計의 比重이 높다는 점과 그리고 여러經濟變數의 影響을 공통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이를 이용하게 된다. 둘째 所得概念의 問題이다. 여기서 所得이라 함은 勤勞에 대한 一切의 給與, 利子, 配當金, 賃貸收入및 其他의 財產收入, 副業所得 그리고 移轉所得이 포함된다. 이들 所得을 勤勞所得과 其他所得으

個人所得 概念과는 일치 되나 그 比重의 不安定性은 標本抽出에서의 偏倚인지 아니면 景氣變動에 따른 勤勞所得의 變動을 반영한 것인지 分明치 않다. 그것이 前者에 기인한것이라면 分布狀態의 偏倚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後者에 의한것이면 不均等度에 크기에 반영될것이다.

表1. 年度別勤勞所得比重

年 度	勤勞所得比重(%)
1963	92
1964	89
1965	89
1966	88
1967	83
1968	83
1969	85
1970	86
1971	87
1972	87
1973	88
1974	91
1975	91
1976	93
1977	93
1978	93

資料：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都市家計調査年報

所得分布의 不均等度 測定方法은 여러 가지 있으나 本稿에서는 「지니」의 集中指數를 채용한다. 「지니」에 의해서 提示된 不均等度測定手段은 두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集中指數이며 다른 하나는 集中係數이다. 集中係數는 「로렌즈」曲線상의 相對面積 즉 對角線의 한쪽 三角形面積에 대한 로렌즈曲線상의 不均等度指標面積의 比率로 표현된다. 이것은 「로렌즈」에 의한 圖示의 比較指標를 係數로 표현한것에 불과하나 集中係數에 대한 解釋상의 편의 때문에 널리 이용되는 不均等度指標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인 集中指數는 다음과 같은 以上累積所得人員 N_x 函數式的 常數 δ 로 한다. 즉

$$N_x = C^{-1} S_x \dots \dots \dots (1)$$

이다. 여기서 N_x 는 x 所得以上 累積所得人員이고 S_x 는 N_x 의 受取所得 즉 x 所得以上을 取得하는 所得累積額이며 C 와 δ 는 常數이다. [11] 위식(1)에 對數를 취하면

$$\log N_x = \delta \log S_x - \log C \dots \dots \dots (2)$$

로서 線型式을 얻게 된다. 이 식은 「파레토」式에서 最高所得水準 x 가 無限일 경우에 所得累積人員 N 이 零이 되는 非現實性을 補完한 것이라 하겠다.

「지니」集中指數 δ 는 식(2)에서 보는바와같이 크면 클수록 不均等度는 커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것은 所得人員의 累積値와 그 人員이 取得하는 所得額과를 對應시켰기때문에 $\delta=1$ 일때는 로렌즈曲線에서의 完全均等線과 일치된다. 따라서 高所得層에 所得이 集中되었다면 集中指數 δ 는 당연히 커지게 되고 반대로 完全均等分布되었다면 그것은 1이 될것이다.

의指數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分布의階層別構造는 반영되지 않는다. 本稿에서 追求하는 바가 經濟發展에 따른 所得分布狀態의 變化를 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一意的인「지니」集中指數만으로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追加적으로 所得階層을 3個로 區分하고 그 각 階層에서의 配分率을 對比하는 동시에 經濟發展에 따른 또 時間經過에 따른 각階層의 所得配分率變化樣相 내지는 그의 趣移를 分析코자 한다 즉 所得水準別로 上位 25%의 所得人員이 取得하는 所得額比率(全體所得額에 대한 比重, 百分比로 표시), 上位 50%의 所得人員이 取得하는 所得額比率 그리고 下位 25%의 所得人員이 取得하는 所得額比率와 1人當 GNP와의 關係 그리고 그들 比率의 年度別 變動趣移도 分析하게 된다. 그리고「지니」集中指數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變動樣相을 分析하게 된다. 또 이들 指標을 補完說明하기 위해서「파레토」係數의 變動도 보게 된다. 이것은 韓國의 所得分布狀態의 變動特徵을 파악케 하는 同時에 逆U型假說도 檢定하게 된다.

4. 經濟成長과 不均等度

全都市勤勞家口現金所得階層別家口分布表에 의해서 1963년부터 1978년까지 式(2)에 의한「지니」集中指數는 다음 表 2에서 보는바와 같이 全期間 1.5정도를 중심으로 小幅變動하고 있다. 16년간에 經濟의 成長은 1人當 GNP 基準으로 14.4배나 되는데 반해 크게 변하지 않은 듯 하다. 그러나 그의 變動을 보면 대체로 初期에 비해서 1970年代前半期까지는 서서히 적어지다 1974년부터 다시 上昇勢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1970年代前半까지 所得分布의 不均等度가 점차 改善되다가 다시 70年代後半에 惡化되어가는 現象으로서 逆U型假說과는 對立되는 樣相으로 보인다.

「지니」集中指數의 變動이 年次的으로 민감한 反應은 보이지 않는다. 이를 補完하기 위해서 所得水準別로 所得人員을 階層化하여 각 階層別人員이 取得하는 所得配分率을 보면 보다 민감하게 그의 變動이 나타난다. 즉 下位 25% 所得人員의 所得配分率(%)을 보면 1963년부터 점차 그 比率이 높아지다 1970年을 頂點으로 다시 적어지고 있다. 즉 1963년에 下位 25% 人員이 取得하는 所得配分率は 10.65%밖에 안되는것이 1971년에는 13.71%로 向上되었다가 다시 下降하여 1977년에는 10.34%밖에 안된다. 반면 上位 50%의 경우도 1963년에는 이들의 所得配分率은 71.92%나 되던것이 1972년에는 67.63%로 4「포인트」이상이나 下落하였다가 다시 1977년에는 73.31%로 1「포인트」이상인 25%階層에 비해서 1963년에

表2

지니 集中指數推定結果

年 度	$-\log C$	δ	R
1963	7.5855	1.5960	0.9970
1964	8.0103	1.5997	0.9976
1965	8.1944	1.6123	0.9976
1966	9.1895	1.7206	0.9975
1967	8.5196	1.5802	0.9978
1968	8.6824	1.5809	0.9984
1969	8.8408	1.5909	0.9977
1970	8.2752	1.5129	0.9986
1971	8.6473	1.5492	0.9994
1972	8.5940	1.5298	0.9990
1973	8.3641	1.4901	0.9958
1974	8.6758	1.5173	0.9985
1975	10.1839	1.6837	0.9983
1976	10.5089	1.6959	0.9983
1977	9.4480	1.5204	0.9974
1978	9.7973	1.5413	0.9972

表 3.

不 均 等 度 指 標

年 度	1人當 GNP(\$)	所得配分率(%)		
		下位 25%	上位 50%	上位 25%
1963	89	10.65	71.92	47.64
1964	93	11.51	71.30	45.68
1965	93	12.14	70.03	44.76
1966	109	11.81	70.93	45.50
1967	122	11.22	71.56	46.01
1968	143	11.69	70.39	45.30
1969	177	11.65	70.02	44.54
1970	243	13.09	67.97	43.05
1971	278	13.71	67.68	43.04
1972	306	13.52	67.63	42.97
1973	386	12.71	69.23	43.65
1974	523	13.07	68.04	42.56
1975	573	10.95	71.20	46.75
1976	765	10.64	72.17	47.66
1977	965	10.34	73.01	48.57
1978	1070	10.68	72.68	47.10

線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低所得層은 經濟發展에 따라 所得配分率이 높아지고 그리고 高所得層에서는 그와 反對의 方向으로 變動할때 不均等度가 改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低所得層에서의 그것은 높아지다 다시 下降하고 있고 高所得層에서의 그것은 下落하다가 다시 上昇하는 反對의 現象을 보이고 있어 이것 또한 逆U型假說과는 對立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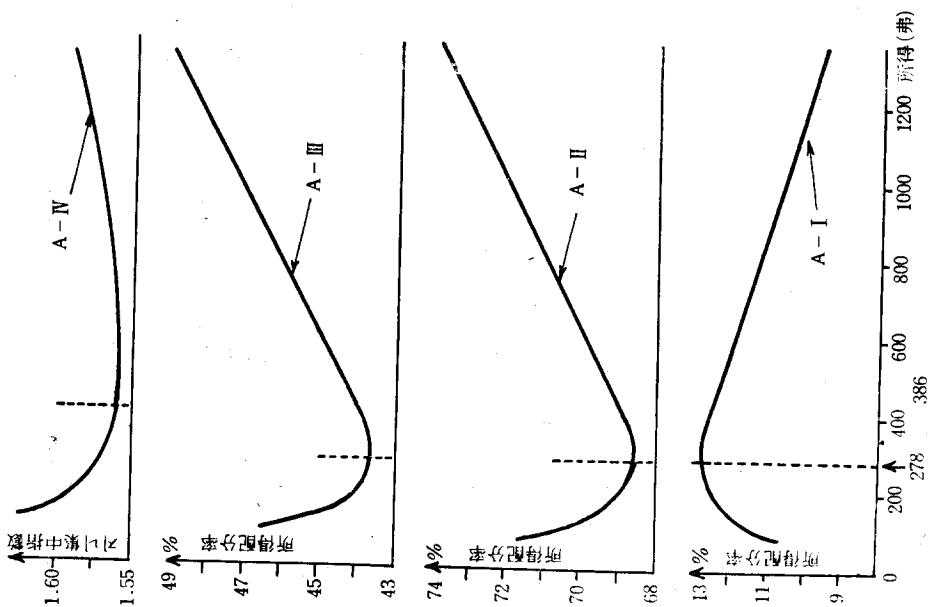
이러한 관계를 一義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각 階層別 所得配分率과 「지니」集中指數를 1人當 GNP 對數値와 관련시켜 二次式에 符合시키고 또 이들 각각의 所得配分率時系列과 「지니」集中指數時系列을 단순한 二次型에 부합시켜 본다. 그 결과 다음 表 4 및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니」集中指數에 대한 二方程式(A-Ⅳ 및 B-Ⅳ)을 제외하고는 統計的으로 有意의이다. 즉 각 係數와 標準誤差와 대비한 t 統計量이 絕對値 3을 초과하고 있고 또 相關係數 R이나 F 統計量도 상당히 커서 有意的의이다. 그리고 각 係數의 符號도 앞에서 본 直觀과 일치된다. 다만 「지니」集中指數의 時系列을 二次式에 符合시킨 方程式(B-Ⅳ)과 그리고 이指數와 1人當 GNP 對數値와를 二次式에 符合시킨 方程式(A-Ⅳ)은 다같이 統計的으로 非有意的인 것으로 說明力이 희박하다. 그러나 각 係數의 符號는 合當하다.

表 4. 逆 U 型 曲 線(I)

式	從屬變數	說明變數의 推定係數					
		截片	1人當 GNP 對數	(1人當 GNP 對數) ²	R	F	轉換點
A-I	下位 25%의 所得配分率(%)	-26.806	32.373 (8.1689)	-6.6216 (1.6444)	0.75	8.49	\$ 278
A-II	上位 50%의 所得配分率(%)	136.67	-55.337 (12.140)	11.269 (2.444)	0.79	10.87	\$ 278
A-III	上位 25%의 所得配分率(%)	112.38	-56.414 (13.831)	11.583 (2.7842)	0.77	9.31	\$ 278
A-IV	지니 集中指數	2.536	-0.7456 (0.728)	0.1419 (0.1467)	0.346	0.83	\$ 386

이상의 二次式推定結果에서 다음 두가지 特徵이 窺보인다. 즉 그 하나는 經濟가 發展되어 감에 따라 所得配分率은 下位 25%階層을 제외하고는 U型으로 그리고 下位 25%階層의 그것은 逆U型으로 運動하고 있어 「쿠즈넬」의 逆U型과는 對立된 特異한 現象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와같이 曲線運動을 하더라도 U型運動을 하는 2個階層을 對比할때 上位 50%階層보다 上位 25%階層이 보다 敏感한 점이다. 즉 上位 25% 階層이 그들의 配分率이 下降할때도 보다빠르게 그리고 上昇할때도 보다 빠르게 變動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各階層의 配分率變化의 轉換點이

逆U型曲線 (I)
(點線是轉換點)



〈圖 2〉

逆U型曲線 (II)
(點線是轉換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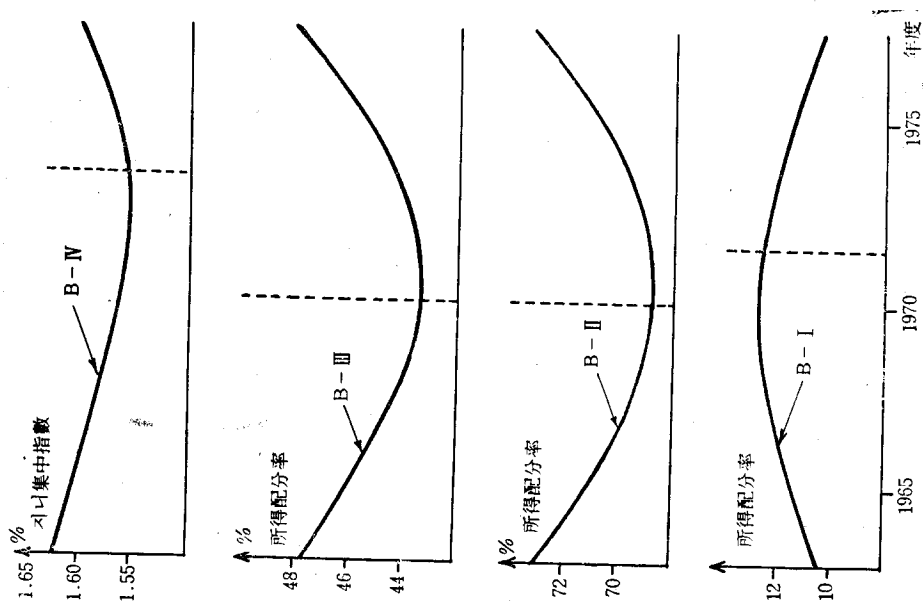


表 5. 逆 U 型 曲 線(Ⅱ)

式	從屬變數	時點에 대한 推定係數			R	轉換時點
		截片	t	t ²		
B-I	下位 25%의 所得配分率(%)	9.895	0.6866 (0.1811)	-0.4166 (0.1035)	0.75	t = 1971年
B-II	上位 50%의 所得配分率(%)	73.67	-1.1505 (0.279)	0.6879 (0.01600)	0.77	t = 1970年
B-III	上位 25%의 所得配分率(%)	48.72	-1.2373 (0.2920)	0.07988 (0.0167)	0.79	t = 1970年
B-IV	지니 集中指數	1.6485	-0.1576 (0.1620)	0.00727 (0.00926)	0.31	t = 1973年

註: 時間은 年度를 표시

表 6. 파레토係數 α 變移

年 度	파레토係數(- α)
1963	1.29
1964	1.12
1965	1.08
1966	1.12
1967	1.75
1968	1.63
1969	1.31
1970	1.64
1971	2.47
1972	2.00
1973	1.81
1974	1.62
1975	1.34
1976	1.36
1977	1.26
1978	1.19

했다 下降하는 變曲點이 278弗이었고 또 上位 50%와 25%階層에서의 그것도 下降에서 上昇하는 變曲點이 278弗이다. 다만 「지니」 集中指數의 그것은 386弗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각 階層의 所得配分率時系列을 二次式에 부합시켰을때의 曲線變曲點은 低所得階層에 비해서 高所得階層이 1年 빠른 1970年이다. 위와는 달리 「지니」 集中指數 時系列에 의한 二次型曲線에서의 變曲點은 1973年으로 보다 後行하고 있다.

「지니」 集中指數와 각階層 別所得配分率의 變動趨勢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같은 樣相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같은 資料에 대해서 다른 方法에 의해서 推定된 所得分布의 不均等度 즉 「파레토」 係數

의 變化樣相을 대비해 본다. 所得分布의 不均等度指標로서의 「파레토」 係數 α 에 대한 解釋은 異論이 提起되고 있으나[20] 「지니」 集中指數와 비교할때 그것은 絕對值가 클수록 그의 不均等度는 改善되는것이고 반대로 적을수록 所得의 集中度는 크다고 해석한다. 이와같이 해석할때 다음表 6에서 보는바와 같이 1970年代初까지 不均等度는 점차改善되다가 다시 惡化되는 傾向을 보인다. 이외에 「지부라」 指數 C의 경우도 같은 趨勢를 보이고 있으며[21] 또 全期間을 對象으로 한 것은 아니나

「지니」係數도 같은 경향으로變動하고 있다. [12] 이상으로 보아 韓國의 경우 1963년부터 1978년까지 그의 不均等度變化는 대체로 1970年代初까지 점차 改善되다 다시 反轉하여 持續적으로 惡化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5. 結 論

最近 所得分布의 不均等度에 관한 論議는 두가지로 集約할수 있는데 그 하나는 不均等度の 精密한 測定方法이며 다른 하나는 經濟發展에 따른 分布狀態의 評價라 하겠다. 後者에 관한 論議를 要約하면 開發途上國을 대상으로 한 이상 세가지로서 統一의 結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그 하나는 經濟發展의 進行과 所得分布 不均等度趨移간에 法則的 關係가 있다는 說로서 이것은 「쿠즈넬」의 逆U型假說이다. 다른 하나는 그 兩者간에는 無關한 것으로서 經濟發展이 그의 不均等度에 대해서는 中立의 效果이거나 또는 不均等度에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再分配政策을 통해서 그의 變化效果를 相殺시킬 수 있다는 說이다. 그리고 셋째는 첫째와 對立되는 것으로서 그不均等도가 部分的으로 U型 運動을 한다는 說이다.

그러나 理論的側面을 追求할때 發展의 初期에는 비록 成長과 公平配分을 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發展이 성숙되어 要素市場이 完全競爭狀態에 있으면 政府에서 意圖的으로 不均等度を 改善시키지 않아도 適正의 資源配分機能을 통해서 그의 深化는 방지되거나 또는 改善될 것이 展望된다. 이러한 理論模型이 前提된다면 逆U型假說은 現實化될 수 있으며 또 과거 工業先進國에서 體驗한 바이다. 다만 不均等度の 轉換點만이 論議의 對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나라에 따라 비록 經濟制度는 같다 하더라도 歷史的 社會的 그리고 人口學의 特性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論議에 따라 韓國의 所得分布에 대한 不均等度を 測定 그 分布狀態의 變化趨移를 檢討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特徵이 認識되었다. 그 첫째는 不均等도가 經濟發展에 따라 逆U型과는 對立되는 U型的 變化推移를 보이고 있는 점이며, 둘째는 그 U型變化曲線의 變曲點인 轉換點이 모든 所得階層이 다 같이 1人當 GNP 278弗이었고 年度로서는 그것이 1970年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지니」集中指數의 變化에서는 轉換點이 386弗이었고 年度로는 1973年이었다. 그리고 셋째는 각 所得階層別로 그의 不均等도가 U型運動을 하되 低所得階層에 비해서 高所得階層이 더욱 敏感하게 變動하고 있는 점이다. 즉 不均等도가 改善되는 過程에

보다 더 빠른 速度로 감소했고 또 逆轉되어 分布狀態가 惡化되는 過程에서 高所得 階層의 配分率 또한 더 빠른 速度로 增加하고 있었다.

위 첫째의 特徵은 구태어 「쿠즈넬」의 逆U型假說과 對應시키려 하는 것은 아니나 우선 그것과 對比시켰을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對立되는 現象이다. 「쿠즈넬」의 分析은 「크로스·섹션」(cross section) 資料로서 開發途上國이나 工業先進國을 다같이 對象으로 한 것이며 또 「아루와리아」의 分析도 「쿠즈넬」의 逆U型과 部分的으로 같은 結果를 얻은 것으로서 이것 또한 그와 같은 類型의 資料分析에서 얻었다. [2] 그러나 本稿에서는 時系列資料에 의한 점에서 그들과 같지 않으며 여기에는 적어도 韓國의 成長過程에서 政策의 遷移過程이 반영된 資料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分析結果와 직접대비시킬 수는 없고 다만 韓國經濟의 構造의 變遷의 制度的 그리고 政策的側面에서만이 그의 特徵이 究明되어야 할것이다.

不均等度の U型推移와 관련된 現象의事實만을 들어 볼때 우선 都市勤勞家計의 勤勞所得比重이 注目된다. 表 1에서 보는바와 같은 그 比重의 變動이 勤勞家計의 所得構造를 반영하는것이라 할때 그것은 분명히 不均等度推移와 因果關係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나가서 經濟成長의 本質的 斷面도 엿 볼수 있게 한다. 즉 勤勞所得의 比重이 60年代前半과 70年代後半에 현저하게 높은 점 이것은 바로 低所得勤勞家計의 擴大過程을 뜻한다. 60年代 前半期에 工業化進行과 더불어 惹起되는 低賃金勤勞者의 擴大는 바로 所得分布狀態를 惡化시키게 했다. 그러나 이들의 점진적인 熟練度向上은 生産性を 높이게 하는 同時에 其他所得을 增大시켜 왔다고 해석된다. 이런 過程에서 70年代를 맞은 韓國經濟는 世界的 「인플레이션」進行, 無秩序한 外資導入, 企業의 不實化, 資源暴騰, 越南戰의 終熄 그리고 原油價의 斷續的 引上등으로 試鍊期에 直面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年代前後半期에 高率의 成長率과 輸出의 伸張이 지속되어 온 점 看過할 수 없다. 그러나 그 裏面을 分析하고 보면 勤勞者 특히 生産職勤勞者의 低賃金強化에 起因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條件下에서 總量的 成長을 위한 低賃金의 強化와 그리고 低賃金勤勞者의 量的 擴大는 바로 所得分布狀態의 惡化를 加速化시킨 것이라 해석 될 수 있다. 한 分析에 의하면 1971年이후 管理職및 專門職과 生産職간의 賃金隔差가 현저하게 乖離되어 가는 現象이 實證되었다. [19] 이것 또한 70年代 不均等度 深化의 實證이기도 하다.

参 考 文 献

1. Ahluwalia, M. S., "Dimension of the Problem", in the Hollis Chenery and Others, *Redistribution with Growth*,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2. — "Inequality Poverty, and Developmen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December, 1976), pp.307—242.
3. Atkinson, A. B., *The Economics of Inequality*, Clarendon Press, Oxford, 1975.
4. Champernowne, D. G., *The Distribution of Income between Persons*, Cambridge, 1973.
5. Colin Clark, *The Condition of Economic Progress*, London, 1940, Ch. XII.
6. Chinn, D. L., "Distributional Equality and Economic Growth: The Case of Taiwan,"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26 (October, 1977), pp.65—80.
7. Cline, W. R.,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A Survey of Literatur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February, 1975), pp.359—400.
8. Dalton, H. "The Measurement of the Inequality of Income," *Economic Journal*, Vol.30, No.119 (September, 1920).
9. Elletto, O. and Frigyes, E., "New Income Inequality Measures as Efficient Tools for Causal Analysis and Planning," *Econometrica*, Vol.36, No.3 (April, 1968), pp.383—396.
10. Fields, G. S., "Assessing Progress Toward Greater 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Yale University, 1977(Mimeographed).
11. Gini, C., "On the Measurement of Concentr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Income and Wealth," Colorado College Publication, (1936), p.208.
12. Kim, D. H., "A Note on The Size Distribution of Income for Non-Farm Household in Korea," Income and Assets Distribution Research Project, Hidotsubashi University, Tokyo, (June, 1977).
13. Kravis, I. G., "International Difference in the Distribution of Incom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2(No. 4, 1960), pp.408—416.
14. Kuznets, S.,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45(No.1, 1955), pp.1—28.
15. Mendershausen, H., "Changes in Income Distribution During Great Depression," *Income and Wealth*, Vol.7, 1946.
16. Morris, G. T. and Adelman, I., "An Anatomy of Income Distribution Pattern in Developing Nations: A Summary of Findings," The World Bank, 1971 (mimeographed).
17. Oshima, H. T., "International Comparison of Size Distribution of Family Income

gentina, and Mexico," *Review of Income and Wealth*, (December, 1970).

19. 金俊輔, 「韓國經濟와 賃金構造」 高大出版部, 1979年.
20. 崔虎鎭, 尹起重, “韓國所得分布의 不均等度에 관한 研究.” 「經濟學研究」 22輯(1975年11月), 7—20面
21. 尹起重, “韓國所得分布不均等度推定에 관한 研究.” 「統計學研究」 6卷 1號(1977年6月), 34—46面.
2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가계조사연보, 1963—1978年度